

노인일자리사업 연구경향 분석

김대건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 analysis of Trends in Senior Employment Project Research

Dae-Gu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제로 하는 학술 연구의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검색 엔진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으로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총 133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자료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기술적 연구방법(descriptive study)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각 연구의 출처,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등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구 주제로 한 학술연구에서 사업 참여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양적 연구가 지금까지 가장 주도적인 연구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노인의 노동이나 사회적 역할 등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철학적·윤리적 검토가 연구로 나타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 경향에 기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내 다양한 참여 주체들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 노인까지도 연구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상황을 비판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경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ends of academic research on senior employment projects. For this aim, research results were collected from keyword searches utilizing academic search engines, and a total of 133 research studies were selected as analysis subjects. Then, we analyzed research trends such as sources, research theme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subjects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eading type of senior employment research was quantitative research that confirmed the effects of projects by targeting the elderly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relatively few cases in which philosophical and ethical reviews were used to understand the labor and social roles of the elderly in connection with senior employment projects. Based on these research trends, this study criticized the situation where not only a variety of main participants but also the elderly taking part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were excluded from the main concern of research and suggested that it was necessary for follow-up studies to emerge from these trends.

Keywords : Senior, Senior Employment, Senior Employment Project,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심각한 노인빈곤의 배경에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퇴 이후 빈곤에 대한 위협과 불안정한 소득생활에 대한 노인의 일반적 대응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소득 확보의 시도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노인의 노동시장참가율은 2017년 기준 31.5%로 아이슬랜드

*Corresponding Author : Dae-Gun Kim(Mokpo National Univ.)

Tel: +82-10-4109-7784 email: iyap21@naver.com

Received January 24, 2019

Revised February 12,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3)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 우리나라 노인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노동동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는 추가적인 장애환경들이 존재한다. 노인인력에 대해 매우 배제적인 노동시장의 성격과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이 유지되면서 노동시장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 따른 노인의 노동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인은 정규 노동시장 재진입에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불안정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처하거나 저임금의 비정규 노동시장으로 밀려나게 된다²⁾.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은 생계의 해결을 위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과 잔류를 시도함으로써 실업 또는 저임금과 사회적 반감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노동환경을 고려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미는 작지 않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업이다[3].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개인에 대해 일을 통한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등의 복지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부담 감소와 함께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도를 통한 건강한 고령사회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4]. 특히 노인의 노동에 적대적인 우리나라 노동환경을 고려하면 노인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 프로그램으로서 2004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사업규모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득 보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보수 수준과 평균 10개월의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면 좋은 일자리³⁾라 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저임금과 실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5].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사업이 도입된 2004년 이후부터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의 대부분은 일부 참여노인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성격이 강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많다. 또한 수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같은 배경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체계로서의 의미가 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학술적 접근의 경향과 관점을 확인하는 본 연구는 노인빈곤이라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인권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재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노인일자리사업

2.1 우리나라 노인의 노동여건

노인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의 제공은 UN의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한다⁴⁾. 다만 이같은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법정정책 근거들은 노인의 욕구로서의 노동에 대한 공적 체계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들 법적책은 노인의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노동의사가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같은 선택의 환경 제공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노동은 실질적인 장벽이 매우 크다. 공적 이전소득에 기반한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매우 미비함에 따라 나타난 기록적인 수준의

1) 아이슬랜드의 높은 노인 노동시장참여율은 인력부족에 따른 사회적 대응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사례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아이슬랜드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만 70세 이상의 노인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즉 노인이 자신의 생계해결을 위해 노동을 상품화하는 의미로서의 노동시장 참여로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보건복지부[2]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48.6%는 비임금근로자이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67.4%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지위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보상수준과 직무만족도, 사회적 위세가 높은 일자리로 규정된다[3]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각각 ‘노동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책임’과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인빈곤은 권리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생계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노동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은퇴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은퇴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다.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노동동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현실적이지 않은 장애환경들은 노인인력에 대해 매우 배제적인 노동시장의 성격과 높은 청년실업률의 유지, 그리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 기반한 노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관련이 있다[6]. 이에 따라 노인은 정규 노동시장 재진입에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노인인력은 저임금의 비정규 노동시장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의 노동력을 부수적인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은 결국 노동시장에 잔류하고자 하는 노인을 주변적 노동, 즉, 저임금의 단시간노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7].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은 생계의 해결을 위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인노동을 잔여적·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과 잔류를 시도함으로써 저임금과 사회적 반감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노인의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측면에서 보자면 노후 소득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인의 노동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노인 노동에 대한 이중적 배제라 할 수 있다.

2.2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의 노동에 대해 배제적인 우리나라의 환경 하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3].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에 노무현정권에서 공약사업으로 기획되어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보여 왔으며⁵⁾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등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 등이 사업의 시행에 관여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욕구를 가진 노인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의 제공이 노인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과소평가하기 어렵다[8].

원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을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정한 공공사업⁶⁾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고유명사화되어 이해되는 이같은 경향은 노인의 경제생활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 발전에만 치중해 오면서 공익활동 보수는 제도 도입 이후 10여 년 넘게 월2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노인들의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도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부각된 2016년 이후부터는 공익활동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사업지침에 명시하면서 이제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노인일자리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9].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소득원으로서 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다[7].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갖는 가치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수준의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추가적 소득원으로서의 의미가 노인들에게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89.7%가 사업참여의 지속을 희망하는 등 일자리 만족도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10].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생활에 미치

5) 2004년에 35,127개의 일자리를 시작으로 하여 2016년 말 기준 429,726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초기 대비 약 12.2배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낸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노인일자리사업은 5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3].

6)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단일 정책사업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15년 이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언급하는 바는 노인의 노동욕구에 대한 공공체계의 대응으로서 일자리사업 전체를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

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분류된 연구논문 133건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논문의 수집 및 분류를 위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쳤다.

먼저 검색단계에서는 노인일자리, 일자리사업,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검색엔진(RISS)에서 제공되는 모든 학술연구 결과를 수집하였다. 해당 학술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 총 2,442개의 연구가 검색되었다⁷⁾.

분류단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연구와 중복연구, 비등재연구를 제외하였으며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한 일부 연구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하였다.

검토단계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전문가 2인과 박사과정 연구자 3인이 소속된 학술집단에 선정된 연구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133건의 연구가 분석자료로 확정되었다.

3.2 분석기준 및 방법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을 둔 학술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분석대상 학술연구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기술적 연구방법(descriptive study)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분석대상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11]. 이를 위해 학술주제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12, 13, 14, 15, 16, 17]를 검토하여 자료의 분석기준으로 연구출처,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을 선택하였다. 내용분석에서 분석자료와 분석기준의 설정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비과학적 견해가 영향을 미칠 경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18, 19].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학술집단에 분석자료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세부 분류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여 분석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기준과 세부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Table. 1 Analytical criteria

criteria	content
Research source	Journals, Thesis
Research theme	Law & Policy, Effectivenes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⁸⁾ , External Characteristics ⁹⁾ , etc
Research methods	Literary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Research subject	Participants, Practitioner, Statistics, Policy, Related Laws, Public, Agency characteristics

4. 분석결과

4.1 연구출처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출처에 따라 구분한 결과 전체 133건 중 91.0%에 해당하는 121건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학위논문은 9.0%에 해당하는 12편이었다. 관련 연구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2009년 이후부터 연구의 수도 크게 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연구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업 시행 이후 동일한 사업내용을 유지하던 노인일자리사업이 2015년 이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으로 분화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화를 겪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된다.

4.2 연구주제

노인일자리에 대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정책, 사업효과, 사업참여자 특성, 외부특성,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사업효과에 대한 연구가 전체 중 46.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8) 사업참여자 특성은 사업의 효과와 그 영역이 중복되거나 구분이 모호한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이 사업참여자 노인의 개인적 영역이나 제도 또는 사회적 수준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넓은 수준에서 사업의 효과로 이해하였다. 이와 구분되는 사업참여자 특성은 사업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원래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석원 등(2015)과 같이 사업참여자의 원래적 특성과 사업의 효과에 대해 동시적 관심을 갖는 경우 둘을 모두 표시하였다[20].

9) 전달체계의 내용은 법정정책과 그 영역구분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를 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되는 실무자 영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박관규·김영대(2015)의 연구와 같이 정책에서 규정하는 위계적 서비스 전달구조는 법정정책에 포함하였다[21].

7) 2018년 6월 24일 기준.

는 주제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경향은 학술지와 학위논문에서 모두 동일하였으며 특히 학위논문(69.2%)에서 그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 사례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ble. 2 Research source Unit: case(%)

year	All	Journal	Thesis
2004	1 (0.75)	1 (0.83)	
2007	4 (3.01)	3 (2.48)	1 (8.33)
2008	6 (4.51)	6 (4.96)	
2009	8 (6.02)	7 (5.79)	1 (8.33)
2010	11 (8.27)	11 (9.09)	
2011	16 (12.03)	14 (11.57)	2 (16.67)
2012	10 (7.52)	9 (7.44)	1 (8.33)
2013	20 (15.04)	17 (14.05)	3 (25.00)
2014	10 (7.52)	10 (8.26)	
2015	16 (12.03)	15 (12.40)	1 (8.33)
2016	17 (12.78)	17 (14.05)	
2017	12 (9.02)	10 (8.26)	2 (16.67)
2018	2 (1.50)	1 (0.83)	1 (8.33)
합계	133 (100)	121 (100)	12 (100)

Table. 3 Research theme by research sources Unit: case(%)

	All	Journal	Thesis
Law & Policy	33 (23.1)	31 (23.8)	2 (16.4)
Effectiveness	66 (46.2)	57 (43.8)	9 (69.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0 (14.0)	19 (14.6)	1 (7.7)
External Characteristics	16 (11.2)	15 (11.5)	1 (7.7)
Others ¹⁰⁾	8 (5.6)	8 (6.2)	
Total	143 ¹¹⁾	130 (100.0)	13 (100.0)

10) 본 연구에서 각 문헌의 연구주제를 분류함에 있어 '기타'로 표기된 연구는 김수영[22], 윤석경·권정민[23], 천재영·최영[24] 등이다. 김수영[22]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사전 취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였고 윤석경·권정민[23]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의 이론적 구성에 대해 논하였다. 천재영·최영[24]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측정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1) 연구주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표시하였다.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이어 노인일자리 관련 법정책에 대한 논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책 관련 연구는 학술지의 23.8%와 학위논문의 16.4%를 점유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사업참여자 특성, 외부특성, 기타 연구는 비율이 크지 않았다.

각 연구의 주제영역을 연구가 발표된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4 Research theme by year Unit: case(%)

	Law & Policy	Effectivenes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ternal Characteristics	Others	Total
2004		1 (50.0)			1 (50.0)	2 (100)
2007		4 (100.0)				4 (100)
2008		4 (57.1)		2 (28.6)	1 (14.3)	7 (100)
2009	3 (37.5)	4 (50.0)			1 (12.5)	8 (100)
2010	1 (8.3)	4 (33.3)	4 (33.3)	2 (16.7)	1 (8.3)	12 (100)
2011	4 (25.0)	10 (62.5)	1 (6.3)	1 (6.3)		16 (100)
2012	4 (40.0)	5 (50.0)	1 (10.0)			10 (100)
2013	5 (23.8)	11 (52.4)	1 (4.8)	2 (9.5)	2 (9.5)	21 (100)
2014	2 (20.0)	4 (40.0)	1 (10.0)	3 (30.0)		10 (100)
2015	5 (27.8)	6 (33.3)	4 (22.2)	3 (16.7)		18 (100)
2016	6 (31.6)	7 (36.8)	4 (21.1)	1 (5.3)	1 (5.3)	19 (100)
2017	3 (21.4)	5 (35.7)	4 (28.6)	2 (14.3)		14 (100)
2018		1 (50.0)			1 (50.0)	2 (100)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업효과 관련 연구는 사업의 개시시점과 동시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이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같은 경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동안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모든 연구의 50%를 상회한다.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같은 주제의 편중현상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사업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제영역 간 비율의 불균형은 명백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다른 연구영역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다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그 빈도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4.3 연구방법

연구 수행에 활용된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가 전체의 75.2%에 달하여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방법에 뒤이어 문헌연구가 전체의 12.8%로 나타났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8.3%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양적 연구방법이 주되게 활용되는 이같은 경향은 발표문헌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분석방법을 연구주제에 따라 구분한 결과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업 효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전체 연구의 4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문헌연구를 통해 법정책을 논한 연구와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사업참여자의 특성을 확인한 연구가 각각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연구가 특정 분야와 방법이 결합한 매우 협소한 연구영역에 집중되어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연구의 주제와 방법 면에서 불균형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Table. 5 Research methods by research sources

	Unit: case(%)		
	All	Journal	Thesis
Literary research	100 (75.2)	91 (75.2)	9 (75.0)
Quantitative research	11 (8.3)	11 (9.1)	
Qualitative research	17 (12.8)	16 (13.2)	1 (8.3)
Mixed research	5 (3.8)	3 (2.5)	2 (16.7)
Total	133 (100.0)	121 (100.0)	12 (100.0)

양적 연구방법은 사업효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연구주제 영역에도 일정 규모의 연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질적연구에서도 사례의 수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모든 주제영역에 연구가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 문헌연구는 법정책 관련 연구에 한정되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문헌이라는 자료의 특성이 법과 정책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함에 있어 적절한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반해 이외의 주제를 연구를 통해 드러내는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Table. 6 Research methods by research theme

	Unit: case(%)					Total
	Law & Policy	Effective -nes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ternal Characteristics	Others	
Literary research	10 (7.0)	61 (42.7)	17 (11.9)	14 (9.8)	7 (4.9)	109 (76.2)
Quantitative research	3 (2.1)	4 (2.8)	3 (2.1)	1 (0.7)		11 (7.7)
Qualitative research	17 (11.9)					17 (11.9)
Mixed research	3 (2.1)	1 (0.7)		1 (0.7)	1 (0.7)	6 (4.2)

4.4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노인일자리 관련 문헌을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가장 빈번하게 연구의 대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전체의 63.3%에 달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제시된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 연구에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양적 연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을 고려하면 사업의 효과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료수집이 용이한 대상으로서 사업참여 노인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참여 노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은 학술지와 학위논문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외에 사업의 수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14.0%),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관련자료(9.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수준에서 생산하는 사업 통계자료(6.7%)를 분석한 경우 등이 뒤를 이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연구의 주제영역과 연구대상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노인일자리 관련 법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을 통해 분석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정책자료(35.9%)였으며 뒤이어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20.5%)와 사업참여 노인(17.9%)가 연구대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earch subject by research source

	Unit: case(%)		
	All	Journal	Thesis
Participants	95 (63.3)	84 (62.2)	11 (73.3)
Practitioner	21 (14.0)	20 (14.8)	1 (6.7)
Statistics	10 (6.7)	8 (5.9)	2 (13.3)
Policy	14 (9.3)	13 (9.6)	1 (6.7)
Related Laws	3 (2.0)	3 (2.2)	
Public	3 (2.0)	3 (2.2)	
Agency characteristics	4 (2.7)	4 (3.0)	
Total	150 ¹²⁾ (100.0)	135 (100.0)	15 (100.0)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에 목적을 둔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사업참여 노인(92.8%)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사업참여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 경우 또한 95.2%에 해당하는 연구가 사업참여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함에 있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업참여자의 특성 확인에 있어서도 참여당사자인 노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연구목적 달성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며 의미있는 것일 것이다.

실무자나 전달체계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은 실무자(43.5%)나 사업참여 노인(26.1%), 기관특성(13.0%) 등이 주되게 활용되었다. 외부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업참여 노인이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는 주로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체계에 대한 사업참여 노인의 인지 또는 평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체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사업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사업효과를 확인하는 비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달체계 등 외부특성(45.5%) 또는 법정정책(36.4%)과의 관계를 연구주체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연구주체의 특성이 연구대상의 적절성과 연결된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함에 있어 사업 참여노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조건에 영향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관련 법이나 정책지침 등 제도환경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데는 제도에 대한 직간접적 접근과 적용이 빈번한 실무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양적연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연구대상은 사업참여 노인으로 양적연구 중 78.0%를 차지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보고된 내용과 결합하여 이해할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연구에서의 중요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업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확인하는 양적연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을 둔 연구들의 가장 주된 연구경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질적연구에서는 사업참여노인이 53.8%, 실무자가 38.5%로 나타나는데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에서의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 Research subject by research theme 1

	Unit: case(%)							Total
	Participants	Practitioner	Statistics	Policy	Related Laws	Public	Agency characteristics	
Law & Policy	7 (17.9)	8 (20.5)	6 (15.4)	14 (35.9)	3 (7.7)		1 (2.6)	39 (100.0)
Effectiveness	64 (92.8)	2 (2.9)	2 (2.9)			1 (1.4)		69 (100.0)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0 (95.2)	1 (4.8)						21 (100.0)
External Characteristics	6 (26.1)	10 (43.5)	3 (13.0)			1 (4.3)	3 (13.0)	23 (100.0)
Others	8 (80.0)	1 (10.0)				1 (10.0)		10 (100.0)

12) 연구대상이 복수인 경우 이를 모두 표시하였다.

Table. 9 Research subject by research source 2

Unit: case(%)

	Participants	Practitioner	Statistics	Policy	Related Laws	Public	Agency characteristics
Law & Policy	7 (6.7)	8 (36.4)	6 (54.5)	14 (100.0)	3 (100.0)		1 (25.0)
Effectiveness	64 (61.0)	2 (9.1)	2 (18.2)			1 (33.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0 (19.0)	1 (4.5)					
External Characteristics	6 (5.7)	10 (45.5)	3 (27.3)			1 (33.3)	3 (75.0)
Others	8 (7.6)	1 (4.5)				1 (33.3)	
Total	105 (100.0)	22 (100.0)	11 (100.0)	14 (100.0)	3 (100.0)	3 (100.0)	4 (100.0)

Table. 10 Research subject by research methods

Unit: case(%)

	Participants	Practitioner	Statistics	Policy	Related Laws	Public	Agency characteristics	Total
Literary research	85 (78.0)	13 (11.9)	6 (5.5)			2 (1.8)	3 (2.8)	109 (100.0%)
Quantitative research	7 (53.8)	5 (38.5)					1 (7.7)	13 (100.0%)
Qualitative research,			2 (11.1)	13 (72.2)	3 (16.7)			18 (100.0%)
Mixed research	3 (30.0)	3 (30.0)	2 (20.0)	1 (10.0)		1 (10.0)		10 (100.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주요하게 나타나는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3편의 학술연구를 선정하고 분류하여 연구출처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노인일자리사업 연구에서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경향은 사업참여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양적연구가 지금까지 가장 주도적인 연구유형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경향을 확인한 변금선[26]¹³⁾의 보고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반면 노인의 노동이나 사회적 역할 등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철학적·윤리적 검토가 연구로 나타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검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 생산된 정책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일방적으로 도입된 성격이 강하며 이 때문에 정책도입 이전에 충분한 철학적·윤리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같은 편향적 연구경향은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한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이외에 사업에 관계된 다양한 체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주요한 학술적 이해가 사업참여노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단편적 성격이 매우 강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제가 사업 참여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였다는 결과는 사업 참여노인을 통해 수행된 많은 연구들이 사업대상으로서의 노인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사업효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업참여 노인에 대해서는 자료의 생산자로서의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 또한 양적연구의 통계적 방법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변금선[26]이 비판한 바와 동일하게 사업체계가 나타내는 내밀한 반응성에 민감하지 못하였다. 이에

13) 변금선[26]은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확인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다만 이 연구는 정책효과 확인을 위한 양적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 사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보편적인 결과를 수치로 이해함에 효율적이었으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주체들의 반응이나 각 체계 간의 관계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노인의 위치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다시 고민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주된 연구대상을 사업참여 노인으로 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내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을 연구의 관심에서 배제하였고 동시에 연구주체를 사업효과에 돕으로써 사업참여 노인조차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남은 연구관심의 주된 방향은 정책대상이 배제된 정책 자체만을 가리킨다.

기록적인 수준의 노인빈곤을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조적 소득을 제공하는 주요한 정책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생활안정이라는 물리적 필요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역할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며 이 때문에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까지와 같은 꾸준한 사업규모의 유지 또는 확대가 예상된다. 이같은 배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갖는 노인 개인과 사회적 수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다양한 학술연구는 지속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수행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질적 측면이 충분히 의미를 갖기 위해 학술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또는 환경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관점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연구경향에 관심을 갖는 후속연구 또한 필요하다. 특히 메타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학술연구의 주도적인 흐름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 이같은 제안이 반영되길 바란다.

References

- [1]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2]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The statistics trend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2017.
- [3] H. N. Phang, S. H. Lee, "A study 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Good Job",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0, No. 1, pp. 93-126, 2006.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A guide of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support program," 2018.
- [5] B. S. Yoo, "A Study o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 Focused on Role of Gyeonggi Province," GRI Review, Vol. 5, No. -, pp. 129-155, 2016.
- [6] W. C. Chang, "Elderly jobs and sustainable labor," Journal of Labour Law, Vol. 63, No.-, pp. 65-101, 2017.
- [7] D. G. Kim, "A study on substitutiv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Older and young labors : A Focus on the interaction of a rate of Low-wage work - Employment data analysis of OECD 20 countr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0, No. -, pp. 239-266, 2015.
- [8] Z. K. KO,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Related Regulations in Senior Welfare Act for Senior Occupation," Hanyang Law Review. Vol. 40, No. -, pp. 83-111, 2012.
- [9] S. K. Hwang, "A study on effectiveness of Korean senior employment program," Hansung Univ., Seoul, 2017.
- [10] J. C. Noh, "A Legislative Review on the Elderly Jobs Project," Dankook Law Review, Vol. 41, No. 1, pp. 465-490, 2012.
DOI: <https://doi.org/10.17252/dlr>
- [11]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12 Survey of participating seniors to senior employment program," 2012.
- [12] I. S. Lee, Y. R. Lee,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Survey Methods," Hakjisa, Seoul, 2007.
- [13] J. W. Kim, S. W. Park, Y. K. Lee, "A Trend Analysis of Research on the College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6, No. 1, pp. 1-23, 2018.
- [14] J. Y. Ryu, Y. K. Son, "How Has Social Worker Burnout Been Studied? : A Review of studies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in Korea,"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Vol. 8, No. 2, pp. 65-94, 2017.
- [15] I. S. Shim, H. S. Shim,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Study of Community Design," Public policy review, Vol. 30, No. 1, pp. 29-48, 2016.
DOI: <https://doi.org/10.17327/ippa>
- [16] M. C. Lee, A Critical Review on Volunteerism Studi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008), Vol. 12, No. 1, pp.151-175.
- [17] S. C. Lee, "Probabilistic Analysis of the Research Tendency of recently Local Administration : Centering on Research Methods, Citation Frequency, Years after Registration among The Cumulative Rela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30, No. 2, pp. 263-277, 2016.
DOI: <https://doi.org/10.18398/kjlgas.2016.30.2.263>
- [18] S. Y. Ha, "A Review of Leadership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8, No. 2, pp. 201-223, 2012.
- [19] B. J. Lee, "Social Welfare Survey," Shinjeong, Seoul, 2015.
- [20] G. M. Chae, "Research Method in Social Welfare," Yangseowon, Seoul 2001.
- [21] S. W. Lee, J. K. Byun, S. J. Hur, D. R. Kim, "An Analysis of health related effect on job creation projects

- for elderly : Focus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403-430, 2015.
- [22] K. K. Park, Y. D. Kim, "An Exploratory Study on Inefficiency of Social Program: Focusing on Delivery System of the Job Provision for the Aged,"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 29, No. 3, pp. 189-215, 2015.
- [23] S. Y. Kim, "Effectiveness in Preliminary Education among Participants in Job Creation Project for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43, No. -, pp. 331-351, 2009.
- [24] S. K. Yoon, J. M. Kyon, "A Study 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Senior Employment Program,"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Vol. 4, No. 2, pp. 31-54, 2010.
- [25] J. Y. Cheon, Y. Choi, "Development of Public Benefit-type Senior Job Matching Service Quality Measurement Model,"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20, No. 1, pp. 1-23, 2018.
- [26] G. S. Byun,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Program: a systematic literature research," Korean Elderly Welfare Society Conference, pp. 206-227, 2018.

김 대 건(Dae-Gu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농촌복지, 중고령층, 사회참여 등